

“신념으로 건강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울릉도 부녀자 건강검사



3無의 섬 울릉도. 유난히 부유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섬 울릉도. 그곳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내 학생건강검사와 부녀자 무료건강검사를 위해 건협 경북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4일간을 분주히 뛰어 다녔다.

짧은 검진 일정 동안 학생 심전도, 빈혈, 간염검사, 부녀자 간기능, 간염, 자궁암, 심전도 검사 등을 위해 식사까지 거르면서 울릉도 곳곳을 누비는 건협 검진팀의 일정에 참여하면서 이번 두 검진 사업의 의의와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저동향에서 배를 타고 30여분. 부녀자건강검사를 위해 일행은 울릉도의 가장 안쪽에 속한다는 북면을 향해 떠났다.

바다 저쪽으로 보이는 “죽도”라는 섬은, 훌륭한 울릉도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슨 비밀을 가진 듯 신비스러움을 내어 뽐고 있었다.

울릉도는 오징어잡이가 주요 생계 수단이긴 하지만 곳곳에서 약초재배도 이루어져 생활에 한몫을 담당하기도 한다. 울릉도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나리분지는 전체가 약초재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푸르른 약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때문인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은 농부의 건강한 모습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건강검사 후 재검사와 치료를 위한 사후처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朴和鍾 울릉군 보건진료원장은 말한다.



• 도비보조로 40~50세 부녀자에 무료검사

건협 경북지부 검사팀은 이곳에서 부녀자 건강검사를 위해 이틀동안 천부, 현포, 태하 등 세곳을 뛰어 다녔다.

『부녀자 건강검진은 경상북도비 보조에 의해 지난 '8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어 올해로 4년째가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40세~50세 사이의 부녀자 50명을 선정해서 자궁암, 심전도, 간기능, 당뇨, 빈혈, 간염, 혈압, 소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경북지부 이제철 계장의 설명이다.

• 건강관리에 관심 갖게 하는 좋은 계기

지역 내의 의료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을 위주로 검사 대상자를 선정, 실시해온 이 부녀자 검사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게는 검사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모두들 반가워 합니다. 그리고 주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인지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면서 건강상담을 해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건강관리와 더불어 보건의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지요.』라고 태하 보건진료소의 정희정 소장은 전한다.

• 주민들의 이해부족, 안타깝다

그러나 아무리 혜택을 준다해도 검사희망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이곳 관계자의 이야기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정향애씨는, 『모두들 검사를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멀리서도 검사를 받으러 오지만 성이거나 약초 재배기에는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라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검사시기를 선정하는 문제도 앞으로 좀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영세민 및 의료
보호 대상자 중
40~50세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검사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 사후처리가 좀더 정확히 되었으면……

한편 울릉군 보건의료원朴和鍾원장은, 『4년째 이 검사를 실시해 오면서, 우선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후 처리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병원을 가든가 해야 하지요. 하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합니다.』라면서, 『올바른 건강의식을 갖도록 하는 보건교육과 함께 사후 처리방법과 치료 대책도 강구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다.

• 검사 희망자 중심의 검사목표를

그는 또,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검사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하향식이 아니라 시·군의 목표를 받아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좀더 원활한 검사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바닥이 보일 만큼 맑고 싱그러움 바닷 내음이 콧끝을 스치는 울릉도에서 해저무는 저녁을 맞는 적이 있는가.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박이고 짙은 달 하나가 하늘에 박힌듯 빛을 발하는 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듯하다.

보다 건강하고 보다 활기찬 울릉도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했던 울릉도. 함께 떠났던 견협 경북지부 검진팀의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

이렇게 건강사회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이
절실하다.